

기분 좋아지는 그림

남정에 작가의  
'별처럼 달처럼'



별처럼 달처럼, 92.5x74cm 한지에 먹, 수간본채, 은 2010



## 달빛에 산토끼처럼 발랄하고 상큼한 새해여라

예구, 잘 뛰기도 하지. 귀여운 것들!

산골마을엔 밤이 빨리 찾아왔다. 겨울 산은 더욱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피해 꼬마 산토끼 한 마리가 어른들 몰래 동무를 꼬드겨 마을로 내려왔다. 달은 높게만 떠 있고 별은 손에 잡힐 듯 선명히 반짝반짝하여 둥그란 토끼의 두 눈이 더욱 커 보였을 정도였다. 푸르른 달빛이 평화로운 촌가(村家)의 마당에 웅덩이처럼 드리워진 깊은 밤.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렸으니, 바스락바스락 툭툭...

꼬마 산토끼 두 마리가 홍매화(紅梅花) 꽃향기에 취했을까, 꽃잎을 따고 싶어졌을까. 매화 꽃잎에 코를 가까이하려 뒷다리를 뻗은 뱀시가 양증스럽기 그지없다. 이즈음, 낮 동안 저 산 너머 짙사랑 여인이 보고파 한 걸음 달려갔다가 곤하게 잠을 자던, 달빛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록달록하게 물든 까치 한 마리가 바스락 소리에 그만 잠을 깬데, 처음엔 산토끼 두 마리가 보여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다시 내려다보노라니, 순진무구 어린 산토끼들의 천진난만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어느새 까지도 입을 헤 벌리고 "예구 잘한다, 잘 뛰기도 하지. 귀여운 것들!"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

양달과 웅달에 사는 토끼, 누가 먼저 나올까?

재미있는 수수께끼 하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굴에서 살던 토끼가 밖으로 나오는데 양달에 사는 토끼와 웅달에 사는 토끼 둘 중 누가 먼저 나올까? 양달의 토끼라고 말하기 일쑤지만 답은 웅달의 토끼이다. 그 이치는 양달의 토끼는 눈이 빨리 녹고 풀이 빨리 자라 봄인 줄 착각하고 양달의 토끼가 굴 밖으로 나왔다가 먼 산을 바라보니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아이쿠, 아직 봄은 멀었군." 하고 굴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기 때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해 되기를

토끼와 까치와 매화가 달빛에 조응(照應)하여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밝게 한다. 그러한 심미를 통해 해석되어지고 따뜻한 미소가 오롯이 살아나기에 '별처럼 달처럼' 해맑고 순수하게 살기를 희망해 본다. 민화(民畵)의 환상성은 때로는 논리적으로 어긋남직한 상황이 발생하나 그것이 되레 자연스럽다. 까치가 잠을 깬 불편이 있었지만, 우연히 보게 된 산토끼의 발랄한 놀이에 동화(同化)되듯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작품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또한 얼마나 상큼하고도 명쾌한 기쁨인가.